

KWDI 이슈페이퍼

수행과제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의 성평등 ODA 전략 연구
과제책임자 윤지소 연구위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평등 ODA 추진 전략¹⁾

초록

- ◆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글로벌 위기 속에 성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지속가능발전의제(SDGs) 달성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위기 대응은 다른 한편으로 '더 나은 회복(Build Back Better)'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이후 ODA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성평등 원조 비율은 여전히 OECD DAC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권에 속해있는 등 개선이 필요함. 한국 역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글로벌 차원의 성평등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성평등 ODA 전략을 수립하여 궁극적으로 글로벌 차원의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를 달성하고, 한국이 선진 공여국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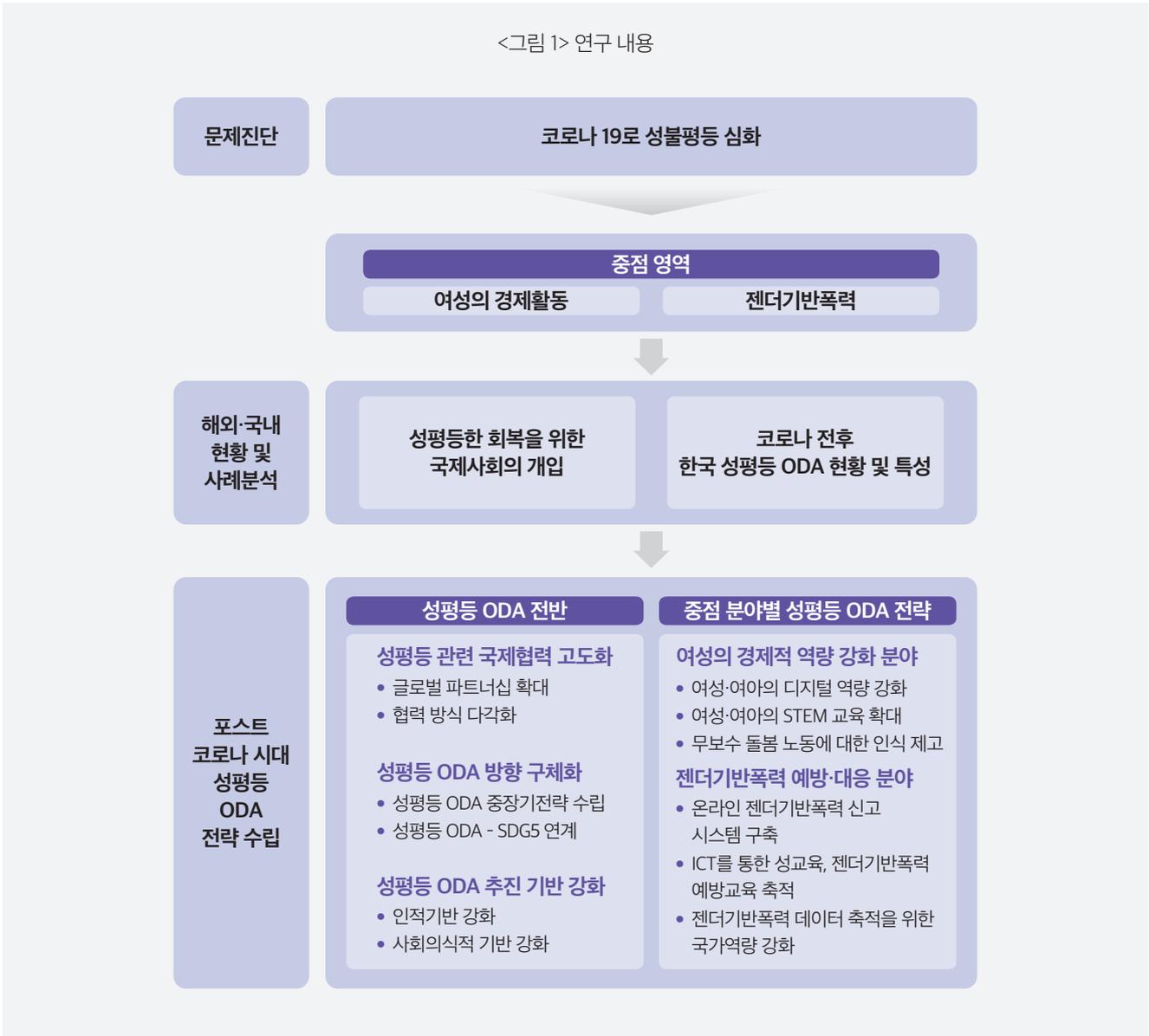
연구배경 및 문제점

- 장기 팬데믹은 전세계적으로 사회경제적 변화를 가져옴. 특히, 코로나 이전에 이미 존재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에 코로나가 더해져 성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되었음.
- 세계경제포럼(WEF)은 코로나19로 전세계 성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성평등 달성을 위해 99.5년(코로나 이전 전망)이 아닌 135.6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함(WEF, 2021). 특히, 코로나19 발발 이후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유형의 폭력이 증가하였고, 팬데믹 상황이 이미 존재하는 성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며 기술 및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 감소, 무급 돌봄노동에 대한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됨.
- 적절하지 못한 위기 대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위기는 더 나은 회복(Build Back Better)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코로나19 회복 및 지속가능발전의제(SDGs)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한국 역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글로벌 차원의 성평등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 또는 일상화로 기존 질서로의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변화된 상황에 맞는 새로운 질서의 규범과 제도가 출현한 시대'라고 할 수 있음. 성평등 ODA는 OECD가 정한 젠더마커 기준에 따라 성평등이 사업의 중요하고 의도된 목표(간접목적)이거나, 성평등이 아니면 사업이 착수되지 않았을 경우(직접목적)를 포괄하는 사업으로 정의함.

연구내용

<그림 1> 연구 내용



연구방법

- ▶ 국내외 주요 보고서, 정책 자료 등 검토.
- ▶ 코로나19 관련 국제통계 조사 및 분석: UN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의 젠더적 영향 및 정책적 대응 현황 분석.
- ▶ 국제포럼 및 위탁연구: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와 국제포럼을 공동개최하여 국제사회의 코로나 이후 성평등 ODA 관련 주된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동 기관과 위탁연구 진행.
- ▶ 사례공유 워크숍: 국내 ODA 시행기관 사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례공유 워크숍 진행.
- ▶ 전문가 자문회의: ODA 정책에 관여하는 정부 부처 관계자, 정책연구기관 관계자,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 진행.

☉ 코로나19와 성평등

- ▶ UN Women은 코로나19가 여성에 미친 영향을 심도있게 분석하기 위해 고용 및 돌봄 노동, 젠더기반 폭력 두 개 분야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패턴을 발견함(UN Women, 2021a; 2021b).

<표 1> 코로나19 이후 주요 분야별 성평등 현황

돌봄 노동	여성에 대한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과 남성의 약 1/4이 일자리를 잃음. •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컸음. • 여성과 남성의 2/3가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큰 부담을 느낌. • 정부나 NGO로부터 팬데믹 관련 서비스와 지원을 받은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낮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계적으로 2억 4,500만 명 15세 이상 여성과 소녀들이 지난 13개월 동안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성적/신체적 폭력을 경험함. • 여성의 45%는 팬데믹 이후 최소 한가지 형태의 VAW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었음. 구체적으로 18-49세 젊은 여성, 실업 상태의 여성, 유자녀 여성이 폭력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성인지적 정책 대응 현황

- ▶ UNDP와 UN Women은 코로나19 이후 도입된 전 세계적 성인지적 정책 대응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글로벌 젠더 대응 추적(COVID-19 Global Gender Response Tracker) 통계를 수집함(UNDP&UN Women, 2021).
- ▶ 해당 통계를 토대로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한국 중점협력국의 성인지적 정책 대응을 OECD DAC 회원국과 비교함. 성인지적 정책 조치 규모 면에서 한국 중점협력국은 338, OECD DAC 회원국은 346으로 큰 차이가 없었음. 그러나 중점협력국의 경우 전체 성인지적 정책대응 조치 중 여성에 대한 폭력이, OECD DAC 회원국의 경우 사회적 보호 조치의 비율이 더 높다는 점에 차이가 있었음.

<표 2> 성인지적 정책 대응 비교: 한국 중점협력국 vs. OECD DAC 회원국

	한국 중점협력국 27개		OECD DAC회원국 29개	
	N	%	N	%
경제 및 재정	21	6.2	20	5.8
노동시장	32	9.5	32	9.3
사회적 보호	84	24.9	113	32.7
여성에 대한 폭력	201	59.5	181	52.3
전체	338	100	346	100

- ▶ 코로나19는 전세계 사회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선진국에 비해 더 타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개도국의 정책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한국 중점협력국의 경우 OECD DAC 회원국에 비해 사회적 보호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젠더기반폭력 분야 역시 서비스 제공과 같은 즉각적 대응에 치중함.

● 코로나19 이후 OECD DAC 회원국의 글로벌 성평등 달성을 위한 전략

- ▶ OECD: 코로나19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개발원조 확대가 시급하다고 선언하고, 국제사회의 주요 공여국과 기관들이 개도국 여성과 소녀를 위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개발원조 관련 조치를 제시함. 특히, 공적개발원조를 비롯한 개발 재원의 확대와 성평등 관점을 주요 정책 의사결정에 포함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OECD 회원국들의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책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는 등 향후 비슷한 위기상황에 대비해 정책적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함.
- ▶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코로나19가 성평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대응이 필요한 분야를 지정하였으며, 실행가능한 프로그램과 분석틀 등을 개발 및 권고하였음. 더 나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개발협력 수행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개발협력 전략이나 성평등 전략을 수립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는데 주요 공여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표 3> 주요 공여국의 코로나19 대응 전략문서 구분

구분	국가 사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략 및 계획 수립	호주, 스페인
코로나19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툴 및 가이드라인 수립	오스트리아, 일본, 스위스, 미국
개발협력 전략 및 성평등 전략 재수립	덴마크, 아일랜드, 스위스
페미니스트 외교정책 및 페미니스트 개발정책 수립	캐나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략 및 계획 수립: 가장 먼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한 국가로 호주와 스페인이 있음. 이들 국가의 경우 젠더기반폭력과 같이 대응이 시급한 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크로스커팅 요소로 성평등을 모든 대응정책 수립에 있어 주류화할 것을 명시하였음.
- ▶ 코로나19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툴 및 가이드라인 수립: 오스트리아, 일본, 스위스, 미국은 코로나19에 특화된 성평등 전략이나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지만 개발협력 활동 수준에서 기존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젠더 기반 분석 툴(tool)이나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음.
- ▶ 개발협력 전략 및 성평등 전략 재수립: 대부분의 회원국은 보다 큰 틀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반영하여 개발협력 전반의 전략 및 성평등 전략을 재정립하였음. 덴마크의 경우 2022년 개발협력 우선순위에 코로나19 대응을 명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SRHR)과 젠더기반폭력을 주요 분야로 포함하였음. 아일랜드는 성평등을 4개 우선 정책 분야 중 하나로 지정하고 모든 개발협력 분야와 포트폴리오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할 것을 명시하였음. 스위스는 기존 개발협력 전략에 의거하여 유연하게 필요에 따른 표적대응(targeted response to needs)을 실시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할 것을 밝힘.
- ▶ 페미니스트 외교정책 및 페미니스트 개발정책 수립: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의 경우 외교 전 분야에 걸쳐 성평등 어젠다를 강조하는 내용의 페미니스트 외교정책 또는 페미니스트 개발협력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페미니스트 외교를 표방하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코로나19에 대한 성인지적 대응을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 젠더기반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SRHR), 긴급 페미니스트 인도주의원조, 긴급정책대응에 있어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 주류화 등을 적용한 제도적 역량 강화, 페미니스트 시민사회 지원 등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 성평등 ODA 추진 배경 및 현황

- ▶ 한국의 성평등 ODA는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을 통해 성평등 ODA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옴. 2010년 제정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제 3조 제 1항은 성평등 ODA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되며,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평등 ODA에 대한 언급이 포함됨. 제도적 기반과 함께 ODA 수행기관에서도 ODA의 성주류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됨. 그러나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수출입은행(EDCF)을 제외한 여타 정부부처와 수행기관 수준의 성평등 ODA 제도 및 전략은 부재한 실정임. 실질적인 젠더 ODA의 확대와 질 제고를 위해서는 수행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 한국 성평등 ODA의 규모와 비율은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개선이 필요함. 최근 한국 전체 ODA의 규모와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데 반해, 성평등 ODA의 규모와 비율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임. 성평등 ODA의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일부 대규모 사업이 종료되거나 축소될 경우 그 규모와 비율의 증감이 더욱 크게 변동되곤 함. 전반적으로, 한국 성평등 ODA는 규모 면에서 여전히 크게 성장이 필요함.
- ▶ 한국 성평등 ODA의 분야별 특징은 보건과 교육 분야에 꾸준히 집중되어 온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분야의 성평등 ODA는 부재한 실정임. 장기적으로 보다 다양한 분야로 성평등 ODA가 확장될 필요가 있음. 향후 보다 많은 기관에서 성평등 ODA를 수행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코로나 이후 성평등 ODA 사업 여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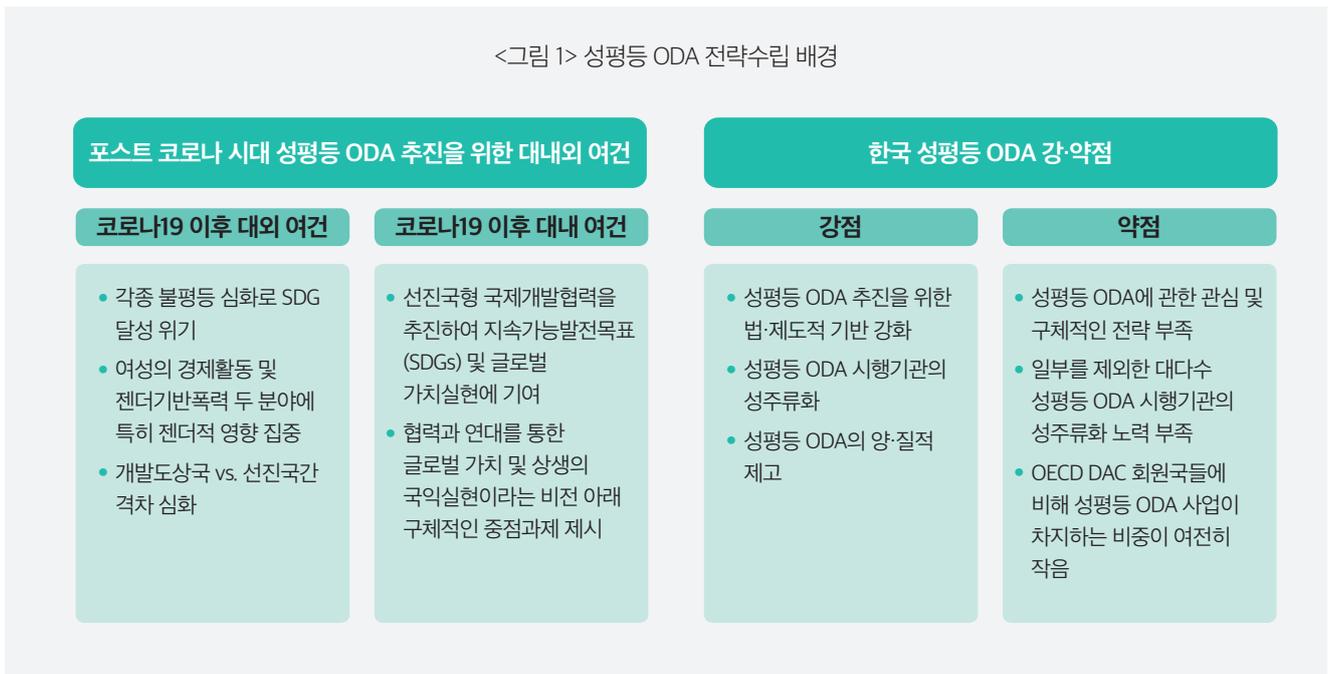
- ▶ 국내 성평등 ODA 수행기관 담당자들은 코로나 시기 크고 작은 환경의 변화를 경험함.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기관들이 사업 현장에서의 봉쇄, 격리, 이동 금지 등을 경험하며 일부 사업수행 자체가 불가능해짐. 대면으로 진행했던 사업들이 비대면으로 변경되면서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자들은 추가 업무의 부담을 느끼기도 하였으며,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업무, 거리 유지나 마스크 착용, 체온측정 등 현지 정부의 제재와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함. 또한, 비대면 사업수행으로 인한 사업 효과성 감소와 같은 어려움을 확인함.
- ▶ 이러한 변화한 사업 여건을 반영하여 향후 성평등 ODA의 제고를 위해서는 코로나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사업담당자들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한 유연한 행정 대응이 매우 중요함. 나아가, 코로나 이후 성평등 ODA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ICT를 접목한 성평등 ODA 확대를 위한 고민과 현장 중심의 사업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 포함되어야 함. 마지막으로, 향후 성평등 ODA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관습을 고려한 장기적인 사업을 발굴·수행, 사업 수행주체의 젠더인식 및 젠더역량강화, 젠더 전문기관 간 협력 확대, ODA의 성주류화 등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평등 ODA 전략 수립 배경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평등 ODA 추진을 위한 대내외 여건

- ▶ 2020년 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불평등을 심화시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지연시킴. 고용 및 돌봄, 젠더기반폭력, 교육, 의료접근성 등 사회경제 전 영역에 걸쳐 성불평등이 심화됨. 국제사회는 코로나19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개발원조 확대가 시급하다고 선언하고, 국제사회의 주요 공여국과 기관들이 개도국 여성과 소녀를 위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개발원조 관련 조치를 제시함.
- ▶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정부가 발표한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할 것을 약속함. 또한, 최근 수립된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은 지속가능개발의제 5P(Partnership, Peace, Prosperity, Planet, Partnership)의 이행방안 구체화를 통한 글로벌 가치 실현, 수원국과 공여국의 공동번영을 위한 상생의 국익 창출, 초국경 이슈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국내외 ODA 주체 간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고 있음.

<그림 1> 성평등 ODA 전략수립 배경



한국 성평등 ODA 강·약점 진단

- ▶ 한국이 OECD/DAC에 가입한 2010년부터 성평등은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제도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읍. 제1~3차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지속적으로 여성·아동·난민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젠더에 대한 고려 강화를 강조함. 또한, 한국의 대표적인 무상원조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KOICA는 성인지적 ODA의 시행을 위해 2011년 성주류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2011년부터 5년을 주기로 성평등 중기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 최근 분야별 중기전략에서도 성평등을 범분야 중점분야로 포함하며 국제사회의 성평등(SDG 5) 달성과 개발협력 사업의 성주류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시하고 있음.

- ▶ 한국은 성평등 ODA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점차적으로 확대했으나, 기타 OECD DAC 회원국들에 비해 성평등 ODA에 관한 관심과 성주류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고, 외교정책 전 영역에 걸쳐 성평등을 강조하거나 성평등 ODA 관련 전략 문서를 발간하고 있지 않음. 한국 성평등 ODA 비중은 OECD DAC의 기타 회원국들에 비해 여전히 낮음. ODA 사업 주체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KOICA를 제외하고는 성평등 ODA의 시행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평등 ODA 추진 전략

● 성평등 관련 국제협력 고도화

- ▶ 성평등 달성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확대가 필요함. 이를 위해 OECD GenderNet 등을 통해 선진 공여국들 사이에서 성평등 관련 가치 규범 논의를 주도하고 자원을 할당할 필요가 있음.
- ▶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 방식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팬데믹으로 드러난 현장 접근성과 최신 현황 파악을 가능하게 하는 증거기반 데이터 구축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현지 시민사회와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제안함. 또한, 2022년 서울에 개소한 UN Women 성평등센터가 교육, 연구, 네트워킹 역량이 집중된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직업능력개발, 젠더기반폭력, 여성평화안보와 같은 글로벌 여성외교 관련하여 향후 성평등 ODA 추진을 위한 파트너 및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하고 협력할 것을 제안함.

● 성평등 ODA의 방향 구체화

- ▶ 대다수의 OECD DAC 회원국들은 성평등 개발협력 전략을 도입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성인지적 긴급 대응 전략을 수립하거나, 기존 성평등 개발협력 전략을 업데이트하면서 코로나 관련 맥락을 강화하거나, 나아가 거시적인 차원에서 페미니스트 인도주의 원조와 같은 구체적인 중점 과제를 제시했음을 알 수 있음. 반면, 한국의 경우 성평등에 초점을 맞춘 개발협력 전략 문서의 발간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음. 이에, 성평등 ODA 관련 중점 영역, 전략 국가, 예산 등이 구체화된 정책의 도입을 제안함. 나아가, 성평등 ODA와 관련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 성평등이 전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개발협력 사업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5)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함. 또한, 중점협력국의 개별 SDG5 지표 달성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관의 사업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의 성과 도모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성평등 ODA의 추진기반 강화

- ▶ 성평등 ODA 사업의 양적·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추진체계에 관여하는 기관에 성평등 ODA 담당자 지정이 필요하며, 나아가 성평등 ODA 정책 관계자 및 사업 실무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ODA 사업 관련 상호 학습을 위한 젠더의식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함.
- ▶ OECD DAC 가입 후 지난 10년간 다양한 성평등 ODA 사업을 추진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한 자료축적이 필요하며, 이러한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더해, 인식제고 차원의 대국민 행사 개최를 제안함.

<그림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평등 ODA 추진전략



중점 분야별 성평등 ODA 전략

- ▶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여성의 노동 및 돌봄 부담 그리고 젠더기반폭력이 증가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특히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및 젠더기반폭력 관련 두 개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분야별 성평등 ODA 전략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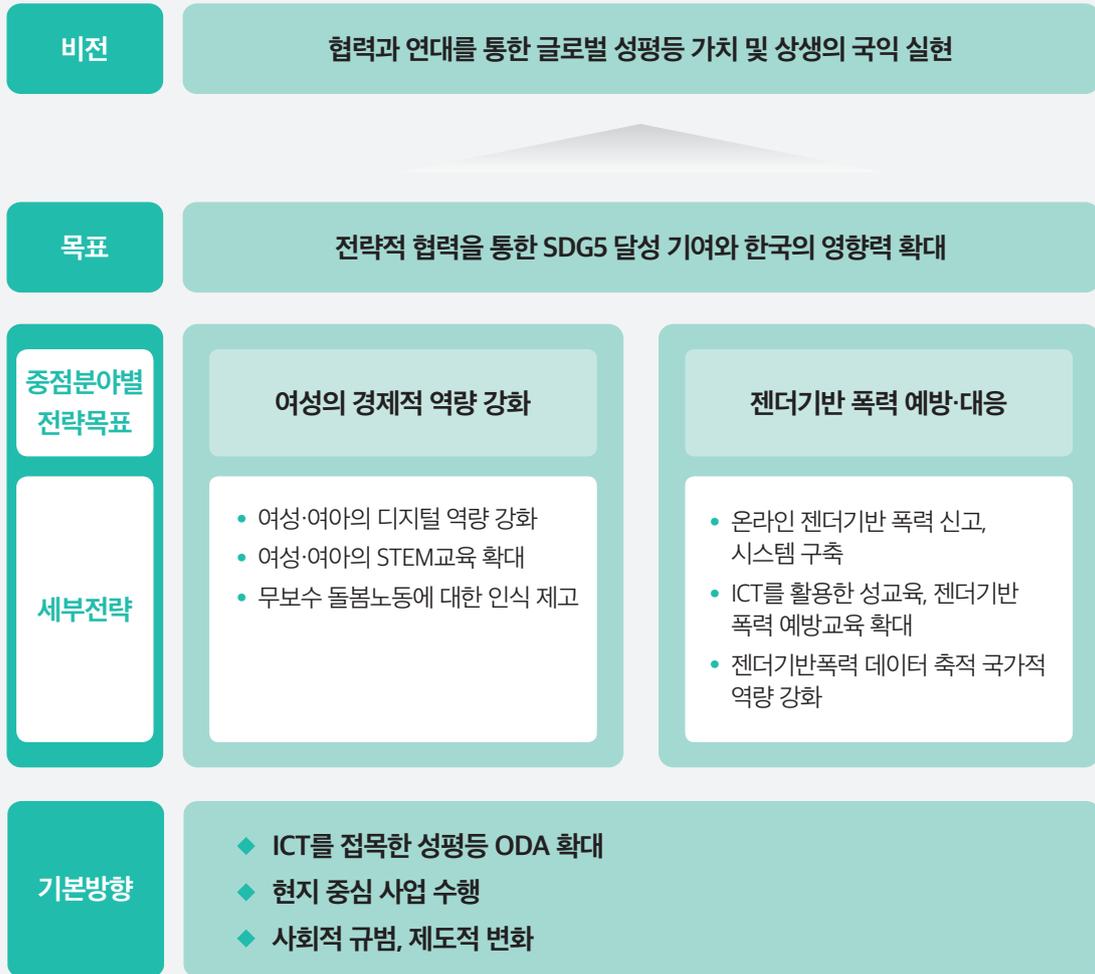
●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분야

- ▶ 여성·여아의 디지털 역량강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면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ODA 사업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ICT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졌으며, ICT는 교육, 건강, 농업 생산성 향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이르기까지 여성과 여아의 삶에 있어 방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음. 여성의 경제적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역량강화를 통해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디지털 전환시기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 역량강화를 통해 관련 분야의 노동시장 진출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 ▶ 여성·여아의 STEM 교육 확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미래 산업에 대한 여성의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 및 여아가 과학기술분야에 흥미를 느끼고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여아 대상의 과학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 개선, 멘토링 사업, 인식제고 등의 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 무보수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제고: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무급노동 부담이 여성과 여아에게 가중되면서 시간 불평등의 성별격차가 더욱 증가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급노동에 관한 각 정부의 대응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무보수 돌봄노동을 가시화하고 여성에게 가중화 되는 무보수 돌봄노동 부담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컨설팅 형태의 성평등 ODA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젠더기반폭력 예방·대응 분야

- ▶ 온라인 젠더기반폭력 신고 시스템 구축: 현재 젠더기반폭력 사업 ODA에서는 주로 오프라인 시스템으로만 지원되고 있는데, 대면 및 이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젠더기반폭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 ICT를 활용한 성교육, 젠더기반폭력 예방교육 확대: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ICT 활용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앞으로 확대될 전망이므로 ICT를 적극 활용하여 젠더기반폭력 예방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모바일을 활용한 성교육, 젠더기반폭력 교육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온라인 상에서의 젠더기반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사이버폭력 예방 및 정보윤리 교육을 통한 디지털 역기능 예방 강화와 특히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조치 등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 ▶ 젠더기반폭력 데이터 축적을 위한 국가적 역량 강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젠더기반폭력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미흡한 실정임. 그러나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현황 및 수요기반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이 요구됨. 이러한 점에서 수원국의 젠더기반폭력 관련 데이터 축적을 위한 국가적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그림 3>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평등 ODA 전략: 중점분야별 세부 전략



참고자료

UNDP and UN Women. 2021. COVID-19 Global Gender Response Tracker. Version 3. https://data.undp.org/wp-content/uploads/2022/08/UNDP_UNW-Gender-Tracker-Nov-2021-Public-Dataset-v2.xlsx

UN Women. 2021a. Measuring the Shadow Pandemic: Violence Against Women During the Pandemic. <https://data.unwomen.org/sites/default/files/documents/Publications/Measuring-shadow-pandemic.pdf>

UN Women. 2021b. Rapid Gender Assessment. Women and Girls Left Behind: Glaring Gaps in Pandemic Resources. <https://data.unwomen.org/publications/women-and-girls-left-behind-glaring-gaps-pandemic-responses>

WEF. 2021. Global Gender Gap Report 2021. https://www3.weforum.org/docs/WEF_GGGR_2021.pdf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본부

관계부처 : 외교부 개발협력과, 한국국제협력단, 여성가족부 국제협력담당관실